

### Original Article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고도흡연과 위험요인 비교

한병화, 강현수, 이근미\*, 정승필

영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 Comparison of Heavy Smoking and Related Risk Factors for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Byeong Hwa Han, Hyun-su Kang, Keun Mi Lee\*, Seung Pil Ju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associated factors of heavy smoking in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comprised 7,984 adults aged 19 years and older who were current smokers and participated in the 5th–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General linear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estimate associated factors for heavy smoking in single and multi-person households.

Result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age, gender, educational level, marriage status, age of starting smoking, and smoking period were associated with heavy smok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Meanwhile, in multi-person households, age, gender,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job, regular exercise, obesity, depression, stress, alcohol drinking, age of starting smoking, and smoking period were associated with heavy smoking.

Conclusion: Single-person households had a higher risk of heavy smoking than multi-person households. In both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those aged in their 40s, males, spouses, those who started smoking before the age of 19 years, and those with a longer smoking period were at a higher risk of heavy smoking. Regarding multi-person households, those aged in their 30s–60s; white-collar workers; engaged in regular exercise; and experiencing obesity, depression, and stress were at a higher risk of heavy smo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usehold type in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policies.

**Keywords:** Smoking; Smoking Cessation; Family Characteristics; Single Person

#### 서 론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는 2000년도에는 4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0%로 가장 많았고,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6% (추정치)로 점차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불충분한 음식 섭취, 신체활동 감

소, 알코올 남용, 흡연을 더 하는 등 건강 위해 요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관절염 및 녹내장, 백내장의 위험이 높았다. 그중 흡연은 잘 알려진 건강 위해 요소 중 하나이다. 흡연은 각종 암, 폐질환, 심혈관질환, 치주질환 등과 관련이 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8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만 19세 이상)의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17년 38.1%로 감소하였고, 한국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6.5%에서 2017년 6%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여러 연구들에서 소

Received August 14, 2020 Revised September 24, 2021 Accepted March 3, 2022 Corresponding author Keun Mi Lee Tel: +82-53-620-3541, Fax: +82-53-654-2413

E-mail: kmlee@yu.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3-3878-6574 Copyright © 2022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득, 교육수준,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금연 가능성이 낮았으며,<sup>3-6)</sup> 혼자 아이를 키우고 직업이 없는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sup>78)</sup>

흡연은 흡연 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니코틴 의존으로 인해 금연이 어려워지고 흡연을 지속하게 된다.<sup>9</sup> 최근 늘어가는 1인 가구의 흡연량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한다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흡연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흡연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금연에 있어서 니코틴 의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니코틴 의존도에 관계된 흡연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흡연자 군에서 가구 형태와 흡연량의 관계 및 관련 요인에 대한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이용하여 흡연자군에서 가구 형태와 흡연량의 관계 및 관련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방법

####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5기-제7기(2010년-2018년, 설문항목이 없는 2013, 2014년도 제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라 평생 100개피 이상을 피운 사람중에서 현재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을 현재 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전체 성인 42,762명 중 현재 흡연자는 7,984명이다.

#### 2. 변수 정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에는 니코틴 의존도 점수를 계산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하루 평균 흡연량이 25개피 이상인 경우를 고도흡연으로 정의하였다. 비만도는 세계보 건기구의 정의에 따라,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일 경우 과체중,  $18.5~kg/m^2$  미만일 경우 저체중, 나머지를 정상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정도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와 '조금 느끼는 편이다' 또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로 응답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사분위 분류에 따라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 유(동거, 별거포함), 배우자 무(미혼, 사별, 이혼)로 분류하였다. 직업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코드에 따라서 비육체노동, 육체노동, 기타로 나누었다. 비육체노동에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가 포함되며, 육체노동에는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되었고, 기타에는 군인, 실업이 포함되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기를 1회 30분 이상 주 5일이상 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우울증은 2주 이상 우울감 여부로 분류하였다.

흡연 시작 연령의 경우 흡연자의 90%가 25세 이전에 결정되는 등,100 25세 이전까지는 흡연자로 고착되기 전 진행 상태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몇몇 연구를 참조하여 성인이 되기 전과 26세를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9110

음주여부는 마시지 않음, 주당 1회 음주군, 주당 1회 초과음주군 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 3. 통계분석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설계는 단순임의표본설계가 아닌 2단계 층화집락 표본설계를 이용해 추출되었으므로, 자료분석 시 이러한 복합 표본 분석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평균 체중, 평균 흡연 시작 연령, 평균 흡연 기간의 연속형 변수는 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범주형 변수로 카이제곱검정을 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 by current smoker

Characteristic	One-person (n=888)	Multi-person (n=7,096)	Total (n=7,984)	P-value
Age (y)	44.30±0.74	42.19±0.19	43.24±0.40	0.004 <sup>b</sup>
Sex				0.003ª
Male	676 (82.6)	6,054 (86.7)	6,730 (86.3)	
Female	212 (17.4)	1,042 (13.3)	1,254 (13.7)	
Body weight (kg)	69.10±0.58	70.12±0.19	69.61±0.30	0.101 <sup>b</sup>
Age of starting smoking (y)	20.62±0.22	19.58±0.06	20.10±0.12	<0.001 <sup>b</sup>
Smoking period (y)	23.65±0.66	22.58±0.18	23.12±0.35	0.102 <sup>b</sup>
Amount of smoking (cigarette)	14.68±0.34	14.07±0.11	14.38±0.18	0.087 <sup>b</sup>
Heavy smoking	72 (9.4)	513 (7.2)	585 (7.3)	0.065ª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number (%).

Calculated by ANOVA.

b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ype of households and heavy smoking status

Characteristic	One-person (n=888)			Multi-person (n=7,096)		
	Non-heavy smoking	Heavy smoking	P-value	Non-heavy smoking	Heavy smoking	P-value
Age (y)			0.022			< 0.00
19–29	118 (23.4)	5 (10.7)		1,009 (21.9)	28 (8.7)	
30–39	125 (22.0)	11 (21.3)		1,574 (25.7)	84 (19.0)	
40-49	111 (17.0)	19 (31.3)		1,440 (23.5)	171 (35.8)	
50–59	166 (18.5)	23 (26.4)		1,246 (17.8)	148 (27.5)	
60–69	159 (11.3)	8 (6.2)		766 (7.0)	69 (7.8)	
≥70	137 (7.9)	6 (4.0)		548 (4.1)	13 (1.3)	
Sex			0.008			< 0.00
Male	611 (81.5)	65 (93.6)		5,554 (85.8)	500 (98.1)	
Female	205 (18.5)	7 (6.4)		1,029 (14.2)	13 (1.9)	
Household income			0.063			0.506
Low	348 (33.1)	17 (18.0)		940 (12.4)	71 (12.9)	
Medium-low	186 (22.5)	12 (19.9)		1,737 (26.5)	143 (29.6)	
Medium-high	148 (24.1)	19 (31.9)		2,011 (32.2)	153 (31.6)	
High	132 (20.3)	22 (30.2)		1,850 (28.9)	139 (25.9)	
Education			<0.001			< 0.00
≤Elementary school	215 (15.9)	12 (12,0)		815 (9.0)	71 (11.8)	
Middle school	81 (7.3)	17 (22.2)		646 (9.1)	88 (17.7)	
High school	275 (41.3)	27 (51.3)		2592 (44.9)	209 (46.1)	
≥College/university	210 (35.4)	14 (14.5)		2287 (37.1)	120 (24.4)	
Marital status	210 (55.1)	()	0.031	2207 (07.17)	120 (21.1)	0.002
Married	96 (9.1)	16 (17.9)	0,001	4,841 (67.0)	416 (75.1)	0,002
Divorced/widowed/unmarried	720 (90.9)	56 (82.1)		1,742 (33.0)	96 (24.9)	
Occupation	, 20 (30.3)	30 (02.1)	0.227	1,7 12 (33.3)	33 (2 1.3)	<0.00
Non-manual	137 (22,7)	13 (15.3)	0.227	1,753 (27.3)	97 (18.5)	0.00
Manual	327 (42.4)	34 (54.0)		3,071 (47.6)	324 (64.6)	
Others	352 (34.9)	25 (30.7)		1,759 (25.1)	92 (16.9)	
Regular exercise	293 (38.7)	18 (27.5)	0.135	2,359 (37.2)	142 (27.8)	<0.00
Body weight	255 (50.7)	10 (27.5)	0.634	2,555 (51.2)	142 (27.0)	<0.00
Underweight	114 (13.6)	9 (13.0)	0.054	818 (12.2)	42 (6.9)	<0.00
Normal	430 (51.3)	34 (45.3)		3,403 (51.1)	241 (47.0)	
Overweight	268 (35.1)	29 (41.7)		2,330 (36.7)	229 (46.1)	
Level of stress	200 (33.1)	29 (41.7)	0.142	2,550 (50.7)	229 (40.1)	0.010
None/low	266 (21.4)	30 (42.2)	0.142	2 152 (24 0)	201 (40.3)	0.010
	266 (31.4) 549 (68.6)			2,153 (34.0)		
Moderate/extreme	· · ·	42 (57.8)	0.520	4,429 (66.0)	312 (59.7)	0.003
Depression	111 (18.6)	12 (22.4)	0.538	589 (12.1)	68 (18.3)	0.002
Alcohol	100 (0.1)	40 (42 0)	0.114	477 (6.2)	FO (O 3)	0.002
None	100 (9.1)	10 (12.9)		477 (6.2)	50 (8.2)	
≤1 time/wk	351 (50.3)	25 (33.8)		3,007 (48.7)	150 (31.6)	
>1 time/wk	321 (40.6)	34 (53.3)		2,879 (45.1)	298 (60.2)	
Age of starting smoking (y)	265 (51.2)	40 (72 2)	0.002	2.407 (57.0)	246 (72.4)	<0.00
≤19	365 (51.9)	49 (72.9)		3,487 (57.8)	346 (70.4)	
20-25	296 (36.5)	20 (24.6)		2,497 (35.3)	140 (25.7)	
≥26	153 (11.6)	3 (2.5)		587 (6.9)	26 (3.9)	
Smoking period (y)			0.005			<0.00
≤9	117 (21.9)	3 (4.1)		891 (18.6)	18 (5.6)	
10–29	313 (45.3)	29 (52.0)		3,274 (53.4)	257 (55.2)	
≥30	384 (32.8)	40 (43.9)		2,406 (28.0)	237 (39.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 were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3. Risk factors affecting heavy smoking in one-person households and multi-person households

Characteristic –	One-person (n=888)				Multi-person (n=7,096)		
Characteristic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Age (y)							
19–29	1.000			1.000			
30–39	2.114	0.596-7.491	0.246	1.867	1.134-3.074	0.014	
40-49	4.004	1,268-12,641	0.018	3.841	2.423-6.089	<0.001	
50-59	3.110	0.994-9.724	0.051	3.883	2.442-6.174	<0.001	
60-69	1.205	0.318-4.566	0.783	2.799	1.673-4.683	<0.001	
≥70	1.099	0.284-4.257	0.892	0.785	0.367-1.679	0.532	
Sex							
Male	3.308	1.292-8.464	0.013	8.507	4.563-15.859	<0.001	
Female	1.000			1.000			
Household income							
Low	0.365	0.177-0.756	0.007	1.155	0.808-1.652	0.429	
Medium-low	0.596	0.268-1.327	0.205	1.243	0.931-1.658	0.140	
Medium-high	0.891	0.419-1.893	0.764	1.095	0.835-1.437	0.511	
High	1.000			1.00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832	0.764-4.392	0.175	1.997	1.398-2.852	<0.001	
Middle school	7.356	3.090-17.509	<0.001	2.972	2,105-4,195	<0.001	
High school	3.029	1.395-6.576	0.005	1.564	1,204–2,032	0.001	
≥College/university	1,000			1.000			
Marital status				·			
Married	1,000			1,000			
Divorced/widowed/unmarried	0,460	0,226-0,939	0.033	0,673	0,521-0,868	0.002	
Occupation							
Non-manual	1,000			1,000			
Manual	0.530	0.254-1.105	0.090	0.500	0,385-0,648	<0.001	
Others	0.691	0.345–1.385	0.297	0.495	0,370-0,662	<0.001	
Regular exercise	0.031	0.5 15 1.505	0.237	0, 133	0.570 0.002	-0,001	
Yes	1.000			1.000			
No	1,664	0.851-3.255	0.137	1,534	1.211-1.942	<0.001	
Body weight	1.004	0.031-3.233	0.137	1.55	1,211-1,5-2	١٥,٥٥١	
Underweight	1,000			1,000			
Normal	0.930	0.371-2.328	0.876	1.629	1,096-2,423	0.016	
Overweight	1.250	0,507-3,079	0.627	2.228	1,469–3,378	<0.010	
Level of stress	1,230	0.507-5.079	0.027	2,220	1,409-3,576	\0,001	
None/low	1 000			1 000			
Moderate/extreme	1.000 1.592	0.858-2.955	0,140	1.000 1.312	1.069.1.613	0,010	
·	1,592	0.000-2.900	0.140	1.512	1.068–1.612	0,010	
Depression	1 200	0.507.3.603	0.530	1.630	1 105 2 215	0.003	
Yes	1.266	0.597-2.683	0.539	1.620	1.185-2.215	0.003	
No	1.000			1.000			
Alcohol	1 000			1 000			
None	1.000	0.460.4.402	0.477	1.000	0.222.0.720	0.004	
≤1 time/wk	0.474	0.160-1.403	0.177	0.484	0.322-0.729	0.001	
>1 time/wk	0.926	0.319-2.686	0.888	0.996	0.682-1.453	0.982	
Age of starting smoking (y)	6.605	4 700 25 552	0.000	2.477	4 206 2 625	2.25	
≤19	6.605	1,700–25,668	0.006	2.177	1.306–3.625	0.003	
20–25	3.180	0.790-12.804	0.104	1.302	0.765-2.213	0.330	
≥26	1.000			1.000			
Smoking period (y)							
≤9	1.000			1.000			
10–29	6.113	1.768-21.139	0.004	3.424	1.954-5.998	<0.001	
≥30	7.107	2.043-24.725	0.002	4.618	2.630-8.110	< 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Values are calculated by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행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서 고도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의성 검정은 P-value<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ver. 25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 결 과

#### 1.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

전체 7,984명 중 1인 가구는 888명(11.1%), 다인 가구는 7,096명 (88.9%)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인 가구 44.30±0.74세, 다인 가구 42.19±0.19세로 차이를 보였고, 성비는 1인 가구 남성 82.6%, 여성 17.4%, 다인 가구 남성 86.7%, 여성 13.3%로 차이를 보였다. 평균 체중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흡연 시작 연령은 1인 가구 20.62±0.22세, 다인 가구 19.58±0.06세로 차이를 보였다. 평균 흡연 기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1인 가구에서 14.68±0.34개피, 다인 가구에서 14.07±0.11개피로 1인 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인 가구의 고도흡연율은 9.4%로 다인 가구의 고도흡연율 7.2%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 2. 가구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1인 가구에서 고도흡연군은 40-49세군, 남자, 고등학교 졸업, 배우자 무, 흡연 시작 연령 19세 이하, 흡연 기간 10-29년이 많았다. 소득, 직업, 규칙적 운동, 비만도, 우울증, 스트레스, 음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인 가구에서 고도흡연군은 40-49세군, 남자, 고등학교 졸업, 배우자 유, 비사무직, 규칙적 운동 무, 정상체중, 스트레스 수준 중등도/고도, 우울감 유, 주 1회 초과 음주, 흡연 시작 연령 19세 이하, 흡연 기간 10-29년이 많았다.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 3. 가구유형별 고도흡연의 관련 요인

가구유형에 따른 고도흡연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들을 각각 투입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교차비(odds ratio)와 신뢰구간(95% confidential interval)을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40-49세, 남성, 고소득,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자, 19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한 경우, 흡연 기간이 길수록 고도흡연할 위험이 높았 다. 연령, 직업, 규칙적 운동, 비만도, 우울증, 스트레스, 음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다인 가구의 경우 연령(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남성, 저학력, 유배우자, 비사무직,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정상체중 또는 과체중, 우울증, 스트레스 수준 중등도/고도, 금주, 19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한 경우, 흡연 기간이 길수록 고도흡연할위험이 높았다.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Table 3).

#### 4. 가구유형과 고도흡연과의 연관성

가구유형과 고도흡연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 성별을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보다 고도흡연할 위험이 높았다. 변수 보정 후 가구유형에 따른 고도흡연의 차이는 P-value<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 고 찰

본 연구에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고도흡연할 위험이 높았다. 흡연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2,13] 1인 가구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는 동거인이 없기 때문에 흡연율 및 흡연량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고,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우울감 경험이 높다는 선행결과 [4]와 스트레스를 높게 자각하는 집단일수록 흡연 행동을 많이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sup>15)</sup> 이러한 요인들이 1인 가구에서 흡연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고도흡연율도 남성이 높았지만, 미국의 경우 남성 5.6%, 여성 4.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영국은 남녀 모두 16%로 비슷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별에 따른 고도 흡연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여성 흡연율이 남성에 비해 낮고,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에 의한 것으로 자가 설문 과정에서 축소

Table 4.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of heavy-smoking according to household types

Characteristic -		Heavy-smoking	
	OR	95% CI	P-value
One-person	1.455	1.072-1.975	0.016
Multi-person	1.000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ex and age.

Values are calcula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보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인 가구에서 여성의 고도흡연율이 다인가구의 여성의 고도 흡연율보다 높았는데 이 또한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 지 및 동거인의 간접흡연 피해 호소 여부로 인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고도흡연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에서 높은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고도흡연의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9.16-18) 에서 확인된 바와 같다. 교육수준은 젊은 성인기에 완료되고, 부모 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므로<sup>19)</sup> 교육 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개인의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다. 흡연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흡연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 이 적다는 보고가 있다.20 고학력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 하는 경우가 많고, 흡연 등에 좀더 제한적인 환경인 경우가 많다. 그 리고 금연에 대해 교육 받을 기회가 많아 흡연의 시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21)

다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고도흡연 률이 높았다. 결혼 상태에 따른 흡연율의 경우 유배우자보다 무배우 자가 0.8배에서 28배 높다는 연구결과2기가 있지만 흡연량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편이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달리 주변에 흡연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적고, 흡연을 할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 교 차비가 더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전향적인 연구를 통 해 흡연량과 결혼 상태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직업에 따른 고도흡연율은 다인 가구의 경우 비사무직이 가장 높 았고, 직업과 흡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비사무직이 사무직보다 흡연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23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 무와 같은 직업특성과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도에 따른 고도흡연율은 다인 가구에서는 정상체중군과 과 체중군에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체 중이 적게 나간다고 알려져 있으나,249 다른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방출로 인해 흡연자가 비흡연 자에 비해 체중이 적게 나가지만 고도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때 담 배 연기를 덜 흡입하여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에 덜 영향을 받아 비만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25

알코올 의존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니코틴 의존도가 세 배 정도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나.20 본 연구 결과 와는 차이를 보였다. 흡연량과 음주량은 여러 가지 관련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흡연 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고도흡연

자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흡연을 일찍 할수록 흡연량이 많아지고, 흡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니코틴 의존도 를 높이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연이 어렵다는 기존 이론 들과 일치하다.<sup>9,16-18)</sup>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써 가구유형별 고도흡연과 위험인자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뿐 인과관 계나 시간적 선후관계의 파악이 어렵다. 가구유형별 고도흡연과 위 험인자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원시자 료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라는 제한점 때문에, 흡연에 대한 지식, 주변인의 흡연 여부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하루 평 균 흡연량을 기준으로 흡연군을 분류하였는데, 파거스트롬 니코틴 의존도 평가(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y) 등의 니코틴 의존 도 점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파거스트롬 니코틴의존도 평 가와 하루 평균 흡연량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어. 의 본 연구에서 하루 평균 흡연량만으로 정의한 흡연군이 대상 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고도흡연할 위험이 높 았으며, 이는 1인 가구의 평균 연령이 높고, 평균 흡연 기간이 긴 것 으로 보아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40대, 남성, 유배우자, 19세 미 만에서 흡연을 시작한 경우, 흡연 기간이 길수록 고도흡연할 위험이 더 높았다. 다인 가구의 경우 30대-60대, 사무직, 규칙적 운동, 비 만, 우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고도흡연할 위험이 더 높았다.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에 가구형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요약

연구배경: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고도흡연과 위험요인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5기-제7기(2010년-2018년, 설문항목이 없는 2013, 2014년도 제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 인 중 현재 흡연자 7.984명을 분석하였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고도흡연과 위험요인의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선형분 석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교 육수준, 결혼 상태, 흡연 시작 연령, 흡연 기간이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인 가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 혼 상태, 직업, 규칙적 운동, 비만도, 우울증, 스트레스, 음주, 흡연 시작 연령, 흡연 기간이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고도흡연할 위험이 높았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40대, 남성, 유배우자, 19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한 경우, 흡연 기간이 길수록 고도흡연할 위험이더 높았다. 다인 가구의 경우 30대-60대, 사무직, 규칙적 운동, 비만, 우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고도흡연할 위험이더 높았다. 흡연예방 및 급연 정책에 가구형태도 고려합 필요가 있다.

중심단어: 흡연; 금연; 가구형태; 1인 가구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ORCID**

Byeong Hwa Han, https://orcid.org/0000-0001-8596-7111 Hyun-su Kang, https://orcid.org/0000-0003-1302-8398 Keun Mi Lee, https://orcid.org/0000-0003-3878-6574 Seung Pil Jung, https://orcid.org/0000-0002-1215-3624

#### REFERENCES

- 1. Kharicha K, Iliffe S, Harari D, Swift C, Gillmann G, Stuck AE. Health risk appraisal in older people 1: are older people living alone an "at-risk" group? Br J Gen Pract 2007; 57: 271-6.
- Kim DH, Suh YS. Smoking as a disease. Korean J Fam Med 2009; 30: 494-502
- Galobardes B, Costanza MC, Bernstein MS, Delhumeau C, Morabia A. Trends in risk factors for lifestyle-related diseases by socioeconomic position in Geneva, Switzerland, 1993-2000: health inequalities persist. Am J Public Health 2003; 93: 1302-9.
- Pierce JP.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trends in cigarette smoking prevalence. Am J Public Health 1989; 79: 152-7.
- Bartley M, Fitzpatrick R, Firth D, Marmot M. Social distribu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change among men in England 1984-1993.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0; 54: 806-14.
- Borrell C, Rue M, Pasarín MI, Rohlfs I, Ferrando J, Fernandez E. Trends in social class inequalities in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 services utilization in a Southern European urban area (1983-1994). Prev Med 2000; 31:691-701.
- Graham H. Smoking prevalence among women in the European community 1950-1990. Soc Sci Med 1996; 43: 243-54.
- 8. Graham H, Der G. Patterns and predictors of tobacco consumption among women. Health Educ Res 1999; 14: 611-8.
- Emery S, Gilpin EA, Ake C, Farkas AJ, Pierce JP. Characterizing and identifying "hard-core" smokers: implications for further reducing smoking prevalence. Am J Public Health 2000; 90: 387-94.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The surgeon generals 1989 report on reduc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25 years of progress. MMWR Suppl 1989; 38: 1-32.
- 11. Augustson EM, Barzani D, Rutten LJ, Marcus S. Gender differences among hardcore smokers: an analysis of the tobacco use supplement of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J Womens Health (Larchmt) 2008; 17: 1167-73.
- Haustein KO. Smoking and poverty. Eur J Cardiovasc Prev Rehabil 2006; 13:312-8.
- Kim A, Park NL, Lee JA, Park HS. Health behavior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young adults from single households: data analysis from the 5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2012). Korean J Fam Pract 2017; 7: 667-73.
- Forkmann T, Brähler E, Gauggel S, Glaesmer H.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related risk factors in the German general population. J Nerv Ment Dis 2012; 200: 401-5.
- 15. Calhoun PS, Levin HF, Dedert EA, Johnson Y; VA Mid-Atlantic Mental Illness Research, Education, Clinical Center Registry Workgroup, Beckham JC.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moking outcome expectancies among U.S. military veterans who served since September 11, 2001. J Trauma Stress 2011; 24: 303-8.
- Jarvis MJ, Wardle J, Waller J, Owen L. Prevalence of hardcore smoking in England, and associated attitudes and beliefs: cross sectional study. BMJ 2003; 326: 1061.
- 17. Augustson E, Marcus S. Use of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to characterize subpopulations of continued smokers: a national perspective on the "hardcore" smoker phenomenon. Nicotine Tob Res 2004; 6: 621-9.
- Ferketich AK, Gallus S, Colombo P, Pacifici R, Zuccaro P, La Vecchia C. Hardcore smoking among Italian men and women. Eur J Cancer Prev 2009; 18: 100-5.
- Galobardes B, Shaw M, Lawlor DA, Lynch JW, Davey Smith G. Indicators of socioeconomic position (part 1).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6; 60: 7-12.
- 20. Jarvis MJ. Why people smoke. BMJ 2004; 328: 277-9.
- Leinsalu M, Tekkel M, Kunst AE. Social determinants of ever initiating smoking differ from those of quitting: a cross-sectional study in Estonia. Eur J Public Health 2007; 17: 572-8.
- 22. Lau EM, Lee P, Lynn H, Sham A, Woo J. The epidemiology of cigarette smoking in Hong Kong Chinese women. Prev Med 2003; 37: 383-8.
- Sorensen G, Barbeau E, Hunt MK, Emmons K. Reducing social disparities in tobacco use: a social-contextual model for reducing tobacco use among blue-collar workers. Am J Public Health 2004; 94: 230-9.
- Audrain-McGovern J, Benowitz NL. Cigarette smoking, nicotine, and body weight. Clin Pharmacol Ther 2011; 90: 164-8.
- Jacobs DR Jr, Gottenborg S. Smoking and weight: the Minnesota Lipid Research Clinic. Am J Public Health 1981: 71: 391-6.
- Grant BF, Hasin DS, Chou SP, Stinson FS, Dawson DA. Nicotine dependence and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Arch Gen Psychiatry 2004; 61: 1107-15.
- Lindenberg A, Brinkmeyer J, Dahmen N, Gallinat J, de Millas W, Mobascher A, et al. The German multi-centre study on smoking-related behavior-description of a population-based case-control study. Addict Biol 2011; 16: 638-53.